지금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일본에도 날아오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 일본도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 북한, 일본이 치명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충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은 국교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식민지 지배 청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무관하게, 일본은 이웃나라와 대립한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혜를 내고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국교를 맺고 선린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일 간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 배의 왕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관계를 열게 된다면 남북의 진정한 교섭에도 좋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진정된 상태입니다만, 중국과 일본은 이 섬 주위에서 대단한 긴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는 도서 방위 방침이 주어져 유사시 미군의 협조 약속을 얻어내고자 아베 정부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 할 말이 있는 만큼 영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평화 국가가 되었을 때 일본이 행한 것은 일중부전(日中不戰)의 서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무력 충돌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센카쿠 열도를 일중이 공동 개발하여 평화의 섬으로 만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생각은 일본국 헌법이 가리키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70년간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길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발언을 둘러싸고 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용이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베이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천안문 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에게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패권을 원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다면 일본과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힘을 합쳐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조연설]

전쟁을 범죄로 여기는 것이 곧 문명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이 포럼에 연사로 초대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전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살인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전쟁을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몇 백만 명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7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라면, 그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갈등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노라면, 우리는 범죄에 대한 진보적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쟁을 범죄로 간주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엉뚱한 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범죄로 여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난 7000년간 전쟁을 해왔고 오늘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 모든 공동체가 노예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노예제는 범죄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노예제가 존속할 수도 있지만, 노예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세계가 노예제를 범죄로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노예제보다도 나쁘기 때문에 전쟁도 범죄라는 사실은 세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황폐화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



해법은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살인을 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범죄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더 큰 범죄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제3국을 통한 해결책인 조정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이들 세 가지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구성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개념은 무역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다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웃 국가들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웃 국가 간 상충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어느 지역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세안을 결성한 이유로, 이제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중간 해역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상을 벌여 이 해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엇이든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해역을 공동 개발하여 이미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양국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사바 주 북보르네오 연안 두 개 섬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재판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이 분쟁에 대해 국제재판소는 이 두 개의 섬이 말레이시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국이 국제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조그만 바위섬을 두고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협상 끝에도 합의를 보지 못해 국제재판소로 갔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이 바위섬이 싱가포르에 속한다고 결정했고 우리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과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로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없었지만 나중에 복원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은 살인을 하기 때문에 매우 미개한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명화된 존재라 생각한다면 어떠한 분쟁이든 그 해법으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엔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해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원국 다수의 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가 간 갈등은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전쟁이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엄청난 돈이 무기의 성능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군집 상태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기가 사용된다면 많은 이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군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민간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살인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보다 더 큰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노예제를 범죄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노예를 소유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전쟁을 범죄시하기 위한 노력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마일의 여행도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국가 간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택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문명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살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인류의 문명화는 절반 정도만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